

## 중동전쟁발 위기극복을 위한 아스콘업계 상생 협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이하 “정부”라 한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은 중동전쟁발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정유사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에 따라 발생한 아스팔트 가격급등과 관련하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4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극 가격인하 하고, 5월 이후에는 인하요인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인하하며 인상 요인이 있을 때에는 인상을 최소화한다.
2. 정유사는 매월 초 아스팔트 공급가격을 확정하여 대리점에 공문 형태로 공지한다.
3.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계약 금액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원가 인상분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산업통상부는 국내 아스팔트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는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5. 정부 부처는 정유사와 대리점, 아스콘업체, 건설업체(포장) 간 공정한 거래질서와 협약이행을 위해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6. 협약 당사자들은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가격 안정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7.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때까지 유효하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2026년 5월 7일